

〈세계의 벚은 지금 2021〉

제16회 파라과이SGI 히로시 카타오카 이사장

2021년 12월 17일

지구(地區) 결성 60주년

마음을 하나로 격려의 연대를

파라과이는 남아메리카의 중심에 위치한 내륙 나라다. 올해 6월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정점을 맞았으나 그 이후 감소하고 있다.

‘세계의 벚은 지금 2021’의 제16회에서는 그러한 사회에 있어, 격려의 연대를 넓히는 파라과이 SGI(창가학회 인터내셔널)의 히로시 카타오카 이사장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외국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파라과이는 감염 확산에 따른 국경의 폐쇄로 경제가 마비.

또 정부에 의해 외출이 제한되어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많고 학교도 장기 휴학에.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정해지기 쉬워졌으며, 가정 내에서의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회합을 기획

▷ 그런 가운데에서도 파라과이SGI에서는 ‘사람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시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핀치(pinche)를 찬스(chance)로”라고 모두가 서로 말하면서, 한 사람도 방치 않도록, 격려를 보내는 대처를 스타트했습니다.

외출 제한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시작한 온라인 회합 중에서도, 호평 받았던 것이 ‘원기 왕성한 주간(週間)’이라고 이름 붙인 매월 2주째의 대처입니다. 이 주간에는 반좌담회를 실시, 리더가 솔선하여 기획을 담당. 많은 동지들이 참여하여 각 부(部)의 단결을 깊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매월 첫 일요일의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제목을 붙인 회합(會合)에서는 청년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기획을 준비해, 모두가 사제(師弟)의 정신에 대해 배우며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절복좌담회(折伏座談會)’도 활발합니다. 많은 우인(友人)들이 창가(創價)의 희망 철학에 공감을 보내주고 있어 대화가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지구 결성 60주년, 학회 창립 91주년인 ‘11·18’을 기념하는 대회가, 파라과이문화회관과 각지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열렸다.(지난 11월 21일)

올해 11월에는 파라과이의 지구(地區) 결성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합을 대면과 온라인의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 코로나화(禍)의 시련에 모두 함께 맞서, 단연코 승리를 열어 가겠다는 결의가 넘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만큼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제목(題目)에 도전하며 마음을 하나로 하여 나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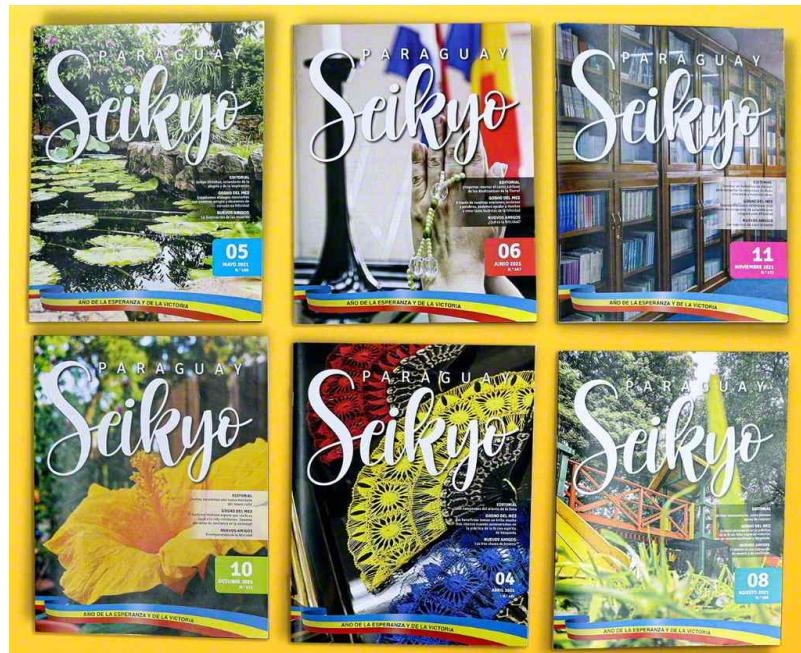
코로나화 속에서, 사회를 뒤덮는 먹구름을 쫓는 창가가족(創價家族)의 유대는 이토록 강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고 진심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많은 멤버가 믿음과 근본으로 곤경에 맞서 전진을 거듭하고 있다죠.

경제 불황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한 벗, 자사 사옥을 감염자를 위한 긴급 입원시설로 제공한 회사 경영자 등, 많은 에피소드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병상 확보를 위해서 분투하는 간호사 여자부원, 자원봉사로 증상의 진단을 임하는 의사 부인부원 등, 쉬지 않고, 그늘에서 진력해 주시는 의료 종사자의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모두의 희망의 원천인 월간지 「파라과이 세이쿄」를 배달해 주시는 ‘무관의 벗’의 여러분에게도 감사는 끝이 없습니다.



월간 기관지 「파라과이 세이쿄」. 청년부 유지가 중심이 되어 배달에 힘쓰고 있다.

창가가족(創價家族)의 유대가 사회를 비춘다

▷ 파라과이SGI 동지들이 사회에 크게 희망의 연대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 한 사람의 리더로서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면, 그만큼, 자신이 행복해져 간다. 사람의 건강을 기원하면, 그만큼, 자신의 건강도 지켜진다.**”라는 이케다(池田) 선생님의 지침을 가슴에 품고 전진해 왔습니다. 이 말씀은 선생님의 불법자(佛法者)로서의 인생이 응축(凝縮)된 것입니다.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면 내 앞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어서 1598쪽)라는 어성훈(御聖訓)과 함께 이 지도(指導)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저도 그러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 강하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화(禍)라는 미증유(未曾有)의 곤란(困難)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선유포를 단연코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전력으로 지혜를 짜내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갖고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불법(佛法)의 진수(眞髓)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신 지 30주년이 되는 2023년, 그리고 학회 창립 100주년인 2030년을 향하여 세계의 동지들과 손을 잡고 지구(地區) 결성 60주년인 올해부터 파라과이 광포에 용감하게 매진(邁進)하겠습니다!